
第19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12月8日(金)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2.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基金運用計劃案
-

審査된案件

1.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11時 06分 開議)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오늘 심의 예정이던 시립대,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

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2001年度서울特別市文化觀光局所管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07分)

○委員長 劉俊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年度 서울特別市 文化觀光局 所管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 의사일정 제2항 2001年度 서울特別市 文化觀光局 所管 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浩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浩 委員; 金成浩委員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개원된 지가 몇 년도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95년 9월 5일입니다.

○金成浩 委員; 미술관이 88년도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죄송합니다. 88년도에 개관해서.....

○金成浩 委員; 그러면 劉俊相 관장님은 여기 몇 년도에 오셨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작년에 왔습니다. 1999년 6월에 왔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미술 소장품만, 간단하게 소장품만 몇 년도부터 구입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미술 소장품은 98년도 당시부터 계속

사기는 샀지만 최근에 제대로 사기 시작했죠.

○金成浩 委員; 그러면 예산투입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산 미술품 정확하게 작가하고 미술 규격, 금액, 연도, 정확하게 작품을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14억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2000년도의 금액은 얼마예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14억원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얼마 구입했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목표는 약 200점입니다만 지금 현재 50점을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 93점을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런데 구입하는데 작가 선정을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합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첫째, 저희 미술관에서 구입 대상자들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술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일괄적으로 미술규격이라든가 틀린데, 작가도 틀리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 제가 의문이 나는데.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가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올시다만, 대략 1,000만원

을 기본단위로 해서 1점은 기증, 1점은 구입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격적인 그런 정책이올시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도 작년도에도 14억에서.....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닙니다. 작년은 1전도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런데 지금 96년,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 연도가 끝이 희미해요. 96년인지 98년인지도 모르게 오고, 전부 1,000만원 똑같이 하고,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안 맞고.

두번째, 지금 여기 기증품에서 사례금으로서는 전부 인정하겠습니다. 사례금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지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成浩 委員; 아니, 작품 구입금액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온다 이것이죠.

제가 구매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아까 미술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작가가 예를 들어서 미술 심사위원장이라든가,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분들 전부 인정합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

○金成浩 委員; 그런데 제가 일본에 올해 갔었을 때 일본 동경도지사 사무실에 우리 무명작가 그림이, 시계그림인데 대단히 아주 우리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림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분 동경도지사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나라 미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꼭 그 유명한 작가 그림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어떤 수집을 해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수집에는 여러 가지, 너무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략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작품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중섭씨 작품은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과라든가 또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가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것 1,0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인데, 작품 호수도 틀리고.

그러면 앞으로 일률적으로 1,000만원 단위로 할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러니까 모든 작가의 작품을 저희는 수집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정한 작가들이, 금년도 선정 대상작가가 약 200명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

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고가는 아닙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왜 추정을 14억원 해 놓고 올해 구입 금액이 그렇게 적죠? 그리고 또 2001년도에도 14억으로 해 놓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지금 저희들이 약 450점 가량의 기존 수장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술관이라는 것은 미술의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한국 사람들의 미의식의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金成浩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시 자료 요청한 것 받아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알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야구 있죠. 야구장을 임대해 줍니까? 위탁관리 하죠? 위탁관리 하는데 개보수는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그것이 위탁관리 계약서에 중요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소모성인 간단한 개보수는 위탁업체가 하도록.....

○金成浩 委員; 그런데 소모성하고 간단한 것은 어느 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간단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탁

업체가 하고, 전면적인 개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위탁은 두산하고 또 어디죠? LG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네, LG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금액이 우리 서울시에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30억 3,000만원입니다.

○金成浩 委員; 우리 서울시민들이 야구나 축구, 정말 어떤 여가선용을 위해서 보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위탁은 주었지만 일반시민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은, 사실 저도 의원 하기 전에는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줄 알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즌이 어느 때부터 시작됩니까, 운동시즌이?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운동시즌이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개보수 관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서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시즌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서울시는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급한 것은 운동 시즌중에도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대개 시즌이 끝나면 합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듣기로는 시즌이 끝나서 개보수를 하면 개보수 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지, 끝나고 나서 개보수 하면 뭐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크게 개보수 한 것은 없습니다.

○金成浩 委員; 물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오기는, 보십시오.

지금 별별 사진 다 찍어서 왔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네, 맞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리고 시설 노후된 것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찍어서 형편없는데.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그것은 일부 대수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자 교체는 명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명년도 예산인데, 예산을 따서 적절하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쳐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吉基演委員님 질의하세요.

○吉基演 委員; 저기 간단한 질문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3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요, 200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지금 1일 입장객 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약 2,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吉基演 委員; 1일 2,500명?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吉基演 委員;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일 2,500명이면 상당히,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이것이 98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러면 상당히 입장객이 많은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이것이 입장객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없고요, 피크타임 때 또 행사가 여기에 많이 열립니다. 그럴 때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吉基演 委員;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인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 주차장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런데 24대 차량을 세우는데 2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이렇다지만 조금 이것 너무, 차 1대 세우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시설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거기다가 차로 실어나를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디다 세워야 될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시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들이 겨우 그 주변에 가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약 그 정도 땅밖에는 없습니다.

그 앞에 중대 용산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

지로 알아본 바로는 이미 개인에게 이렇게 판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즉 관광버스가 회차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 200평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吉基演 委員; 지금 여기 예상위치가 어디 입구 들어가기 전 입니까, 어디예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입구 오른쪽으로 해서요, 매일경제 위쪽입니다.

○吉基演 委員; 그러면 기존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없습니다.

○吉基演 委員; 제 생각에, 지금 남산 한옥마을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시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약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吉基演 委員; 그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건축을 할 때 가보면, 여기 지도도 나와 있는데, 주로 옛 가옥 한 7~8채가 한쪽에 코리아하우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녹지이고 타임캡슐이고.

장소가 많은데 주차장 하나 1,000평 정도 짓기 전에 미리부터 해서 했으면 앞으로 차가 마이카 시대고 해서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을 텐데, 왜 주차장을 전혀 그때 안 하셨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때 당시의 계획에는 한옥마을은 원래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일부를, 한옥마을 있는 데는 한 2,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사실은 그것이 공원계획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일단 주차시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옥마을을 저희들이 이전하고 나서 그것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고 관광객이 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두번째로는 소규모 주차장으로서는 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형태로 끌고 가는데, 당초 계획 당시에 그렇게 공원 일부를 배제하고 주차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은 제기가 되는데 그때 당시는 순수한 공원, 말하자면 모든 시민들이 와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공원 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일단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러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도 공원개념으로 가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현재로써 현재 있는 공원을 저희들이 축소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일대 주변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황을 본 결과 주차장을 일부 잘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선, 진출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뺄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왼쪽으로는 한옥마을이 이미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충정사인가 남산 위에 있던 절을 충정사라고 내려놓고 이리다 보니까 어떻게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가로질러서 중간에다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공원 이미지에 맞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앞으로 중대 용산병원 부지가 해결이 되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일단 지금 다른 개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것은 장기계획으

로 중대 용산병원을 생각할 예정입니다.

○吉基演 委員; 여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8명 정도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러면 그 양반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까, 전혀?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吉基演 委員; 괜히 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吉基演 委員; 그리고 옆에 코리아하우스가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것도 서울시 같은 시설물.....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서울시하고 관계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吉基演 委員; 거기는 주로 밤에 공연이 벌어지니까요, 낮에는 주차장이 뱅뱅 비어 있더라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왜냐하면 현재 한옥마을을 위탁받고 있는 곳이 문화재보호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주간에 올 때에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것 확실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吉基演 委員; 여행사나 이런 데서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吉基演 委員;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는 손님만 내려놓고 빙빙 돌다가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더 덧붙이겠는데. 국장님, 서울시에서 밤에 갈 곳이 어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가볼 만한 곳.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관광객들이 가장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동대문·남대문시장, 시장 주변이라든가 인사동, 이태원, 남산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래서 밤에 갈 데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그런데 밤 시간도 저녁시간이 한 6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더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이 한옥마을을 밤에도 오픈을 했으면 어떨겠느냐, 한 9시나 10시까지 라도, 이것이 4시, 5시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이 궁하고 같이 대문은 닫고요, 쪽문을 열어 놓습니다. 왜냐 하면.....

○吉基演 委員; 그런데 입장객은 안 받더라 말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입장객은 안 받죠. 왜냐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는 아무리 저희 직원이 있어도 한옥이기 때문에 훼손의 가능성

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좀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吉基演 委員; 훼손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좀 방비를 하시고 밤에 조명을 멋있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옛날에 채알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잔치할 때 치는 것, 큰 포장 이런 것을 거기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치셔서 누각도 멋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밤에 또 무슨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벤트를 하고 하면 지금 삼청각인가 어디를 몇 백억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저녁에 전통쇼를 하시겠다는 그런 예정이 있는데 그것 하시기 전에라도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吉基演 委員; 그래서 적극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코리아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문이 한식으로 잘 지어져있는데, 거기에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인지 몰라요. 한 300m를 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골목 앞에다 용산병원하고 매일경제하고 얘기를 하셔서 입구에 누각을 하나 세우신다든가, 아쉬운 대로 장승이라도 크게 세워서 여기가 한옥마을 있는 데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것 돈 많이 안 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알겠습니다.

○吉基演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盧永奭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盧永奭 委員; 盧永奭委員입니다.

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또 관광진흥으로 인한 수입은 또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아주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시티투어버스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시승을 했습니다만, 이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그간에 여러 번 계획했다 실패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盧永奭 委員;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두 달 되었다는데, 1달러로 서울시내를 관광할 수 있다라는 구호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유지가 되면.

또 발동이 걸려서 서울시의 어떤 관광자원을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또는 좋은 서울을 외국인들에게 PR이 되면 좋는데 과연 1달러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체, 또 관광진흥위원회, 또 관광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즉,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그 요금으로서는 적자보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옛날에 했던 것은 전세버스 형태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시티투어버스는 사실상 지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로 보서는.

즉,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면서 정시운행을 하는, 즉 외국 시스템과 똑같은 시티투어버스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것입니다.

○盧永奭 委員; 그런데요,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미 몇 번 시도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盧永奭 委員; 글썄, 국장님, 그런 설명은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달이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 가지고 서울관광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하겠느냐,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신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盧永奭 委員; 그런데 1달러로 지금 서울시내 관광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현재 1달러라는 것은 1회 승차하는 분이 1,200원입니다. 그리고 전일권이 5,000원입니다.

○盧永奭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일에 1,200원이고 전일권은 5,000원인데 그런 상태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입니다.

○盧永奭 委員; 안 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적자보전을......

○文化觀光局長 崔頌; 적자보전 합니다.

○盧永奭 委員; 얼마 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현재 운영비에 따르는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1~2년 동안은 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1~2년이라는 어떤 제한된 기한 내에 적자보전을 해서 2~3년 후부터는 이것이 원활하게 문화국에서 계획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느냐 이것이 지. 좀 소신있는 말씀을 하시자는 얘기지.

우리가 계획되어서 탄생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불과 두 달 만에 엄청난 현실과 다른 그런 결과를.....

○文化觀光局長 崔頌; 일단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해 준다고 업체를 모집한 그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역시 이 적자는 보전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또 외국의 경우는 지금 수십년.....

○盧永奭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적자보전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시작이 잘 나가겠다 하는 전망이 있는 것이냐.....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 전망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전망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이것 분명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죠, 책임있게.

또 여기 여러 직원들 계신데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한, 확신있는 그런 사업이라야지 또 1~2년 적자보전 해 주다 흐지부지 된다면 이것은 자원낭비고 시민들의 세금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2년 적자보전만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이 섰다면 그것은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회 승차에 1,200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盧永奭 委員;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굉장히 적습니다.

○盧永奭 委員;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경영분석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이 요금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요금을 대폭 올려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이 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본 다음에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그러면 달수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文化觀光局長 崔頌; 꼭 6개월은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盧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월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지금 계절도 그렇고 또 내년 봄부터 우리가 홍보가 그때는 굉장히 침투되어 있을 때니까 아마 그때 되면 상당히 늘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과감히 요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盧永奭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사실 이런 사업은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회는 알고 있어요.

만일 상당한 적자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문화국에서라도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가능성이 내다보이는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을 시키고 있는데, 국장은 내년 상반기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수렁인데 빠지는 것 알면서 좀더 기다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3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물론 2~3년 후

에는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기다려 볼 수 밖에는 없는데 사실 관광사업은 선진국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아주 정규코스나 같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吉基演委員님이 질문할 때 한옥 마을 저녁 늦게는 그 자체가 손실되고 어찌고 저찌고, 문을 닫았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런 훼손될 위험을 방지하면서 자꾸 개방이 되어야 관광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이것은 저녁은 어떻고, 비오면 어떻고, 바람 불면 어떻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소위 말하는 전천후식의 관광상품을 개발도 하는데 있는 것까지도 활용 못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예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조명은 위에서 밑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외국 가봐요. 밑에서 위로 조명을 하잖아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습니다. 간접조명을.....

○盧永奭 委員;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이 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증폭은 많이 관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는 시티투어버스 사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마자 적자를 얼마인지 모르게, 지난 바깥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5억 어찌고 저찌고 그랬는데 여기는 5억 얼마인지 4억 얼마인지 보전해 주는 것하고 중앙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얼마 이렇게 너무 기준이 모호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서울시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의 사각지대예요.

지난번에도 월드컵 때문에 숙박시설 지원도 해야 되고 명칭, 여러 가지 고심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런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규칙도 시행규칙도 철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우리 나라가 제가 외국하고 특별히 비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천혜의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많은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좋은 자연도 그냥 죽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우리 관광진흥사업이 얼마만큼 이 나라 경제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1~2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년 후에는 아, 역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잘 되었구나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頴;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랑 청소년수련관, 아까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9,900m²면 평으로 하면 3,000평입니까?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데 임야.....

○文化觀光局長 崔頴; 아마 그쪽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그러면 15억이면 평당 한 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물론 이런 시설은 땅이 있을 때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서울시내에 이런 땅이 없거든요, 서울 근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데 2000년 9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2월이죠, 금년 9월부터, 지금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요. 부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15억을 해서 통과되면 내가 보기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 먼저 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옛날같이 땅값이 오를 때에는 부지매입을 먼저 쌀 때 사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땅값이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15억씩이나 해서, 물론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9월하고 내년 12월이란 말입니다, 금년 9월부터.

그러면 이 예산 15억을 해 놓고 금년 9월이죠? 금년 9월이면 예산 하나도 없이 뭐 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이것 준비작업이 도시계획시설 절차.....

○委員長 劉俊相; 지금 그것 결정이 되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직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기본조사설계는 어떻게, 우선 도시계획 확정인 다음에.....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지 부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뭐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盧永奭 委員;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지 않습니다.

○盧永奭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중랑에는 이미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었는데.

○文化觀光局長 崔頌; 약 800평 정도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8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대체 수련관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군데를 다 만든다는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 중랑의 계획은 일단 800평짜리 중랑 청소년수련관 자리 유지하면서 이것을 지은 다음에 그 시설의 용도는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盧永奭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천만시민을 위해서 25개 구청에 고르게 하나씩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가 있는데도 좀 미흡하니까 다시 또 지어주는 것이, 지금 서울시 재정이 말이에요, 15억이라는 것도 막대하지만 지금 빛이 한 6조원 되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盧永奭 委員; 그런데 같은 것을 좀 속된 표현으로어떤 사람은 배 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 곡아 죽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 盧委員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랑의 경우는 당초에 그 시설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었고.....

○盧永奭 委員; 아니,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제가 원칙과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이 존중되면 천만시민이 다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시민 화합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꽃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 2개, 3개, 10개 있어도 되죠. 그러나 그만큼 능력과 그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頴;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구청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그 동안에 죽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거의 다 1개구의 원칙을, 청소년기본법에 1개구 1수련관이 사실상 원칙으로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책방향도 지금 盧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1개구에 1청소년수련관을 준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몇 개구가 남아 있는 것은 부지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나 부지선정에서 어떠한 위치가 적절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이러한 구를 제외하고는 이미 거의 다 착공이 되었거나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盧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랑 청소년수련관은 약 800평, 저희들이 1,500평 규모로 기준을 삼습니다.

너무 적고, 당초에 그것이 다른 시설로 되었던 것을 용도폐지 하면서 가져왔고, 이번 기회에 땅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 확보를 하고 그것이 지어지면 당연히 원래 있던 시설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중랑 같은 데는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고 또 열악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쪽을 배려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盧永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車星煥委員님 질의하세요.

○車星煥 委員;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천경자 작품전, 그리고 기획전시 여류조각가 김정숙 기증 작품전, 이것이 천경자 작품전도 기증받은 작품인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車星煥 委員; 이것을 일반시민에게, 어디에다 전시를 해서 하는 것이죠? 미술관에다 전시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특별관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미술관 내에 특별관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특별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車星煥 委員; 설치할 예정이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새로 짓는, 올해는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하지만 여기 새로 개관하게 되는 미술관에는 특별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전시회 기간이 2002년 5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내년 5월에 하는 천경자 특별전입니다. 저희들이 천경자 화백에게 그림을 받고 그 그림에 대한 모든 판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천경자 화백에 대한 모든 작품의 복사권이 라든가 작품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배제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협약 때 저희들이 천경자 화백에게 특별관을 만들어 주고 또한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특별전을 하고 후년에 저희들이 미술관을 지을 때는 특별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랑 작품전시회는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어디 단체에서 하는가 요? 이것도 어떤 개인이 하는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닙니다. 이것은 김주영씨라는 분이 사단법인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고 환경과 예술을 접합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한 단체인데요, 우리 서울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팔당호 주변이라든가 이쪽이 이분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작가단체로서 이제 팔당호, 말하자면 서울 상수원 그 일대를 보호도 하고 작품활동도 하면서 서울시에 작품 전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김주영이라고 그랬나요? 거기 그러니까 맑은물사랑, 무슨 단체라고 그랬죠? 환경 무슨 단체라고,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입니다.

○車星煥 委員;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지급되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 문화관광국과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관이 없었는데요. 환경관리실과는 그 동안에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파악을 해서 보조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확

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맑은물은 원래 한강이 자꾸만 오염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평하고 양평에 거주하는 미술가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전시회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에서 맑은물사랑전 이런 것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전시회에 대한 계획기본안이 아직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맑은물사랑협의회에서 작성해서, 올해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환경전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맑은 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까 팔당에서부터 죽 흘러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계획을 그쪽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초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초안 가지고는 전시내용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초안을 저쪽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이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확보해 놓자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맑은물협의회에서 건설교통부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가서 어떤 원조를 요청해 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가 미술가들만의 단체인가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현재 주류가 미술가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여기 미술가 단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술가들이 양평하고 가평, 그러니까 한강 상류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미술단체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 단체라든가 미술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예작품진흥심의위원회에 보조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계획들을 저희 문화과에다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작품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또는 미술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과연 그것이 서울시의 목적과 부합하느냐, 즉 서울시의 어떠한 그 시정목표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거나 또는 아주 정말로 이것은 누가 봐도 괜찮은 예술작품 전시회다라든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는 먼저 요구를 했나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입니다. 저희들한테 어떠한 전시계획이 있고, 이것이 어떠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 문화과에 개략적인 계획서는 저희들한테 낸 바가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 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다 이거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작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이제부터 세부계획을 자기네들이 작성을 합니다.

○車星煥 委員; 앞으로 해서 이제.....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계획은 미술관장 말한 대로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그 작품을 전시만 하고 가져가는 것인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물론입니다.

○車星煥 委員; 기증하는 것 아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기증하는 것 아닙니다.

○車星煥 委員;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저희들이 그것이 만약에 작품성이 뛰어난다면.....

○車星煥 委員; 그러면 7,000만원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 7,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시공간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작품운반, 설치비, 도록 인쇄비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전시장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감안해서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초대작가를 저희들이 봤을 때 한 60여 명으로 보고요, 그쪽 계획에 의하면, 한 25일 정도 전시하는 것으로.

○車星煥 委員; 28일간 하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車星煥 委員;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좋은 생각이다 해서 수용해서 내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 이거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좋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 쪽에의 것과 물, 물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그런 것과, 물을 사랑한다는 어떤 관념적인, 물론 주제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제에 맞겠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시의성이 우리 서울시와 맞아들어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앞으로는 좀 어떤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런 특정단체가 아니라 이러 이러한 취지로 하고 싶은데, 단체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도 예술을 하고 사랑하고 미술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술을 접하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특정 단체에다 무조건 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세요, 예산은 우리가 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술가 협회나 다른 협회나 개인이나 작품 전시할 수 있는 응모를 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60작품이죠? 60점을 선정해서 정말 여기에 선정되어서 전시하는 것도 어쩌면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거든요, 작가로서.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 이거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지금 車委員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놓고 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車星煥 委員;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알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시립미술관에 소장작품 보존관리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합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50점입니다만, 그 작품의 여러 가지 성격상 또는 가치상 저희들이 산출한 액수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소장한 미술품 중에서 가장 고가가 얼마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 점은 지금 현재 서울옥션, 말하자면 입찰제도라든가 화랑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에 대한 가격산출의 관례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金成浩委員께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시다만 1,000 만원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돈입니다, 그 작품단위에 있어서 는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미술관이 그것을 수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떤 기증도 권유를 해야 될테고, 또 작품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테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토대로 한 산출입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미술관장님이시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네.

○車星煥 委員; 예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가장 고가가 얼마냐니까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것이 고가품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고가품이 별로 없으면 보험은 뭐하러 됩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보험이라는 것은 작품에 대한 기준상 그런 말씀, 가장 고가품이 지금 저희들 기록으로써는 4,800 만원을 주고 산 작품이 1점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글썄, 가지고 계시잖아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가지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 제목이 뭐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이것은 실내정물화입니다.

○車星煥 委員; 누구 작품이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권옥연씨 작품입니다.

○車星煥 委員; 언제 구입하신 것이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제작한 것은 87년에 제작한 것입니

다만, 구입한 것은 한 2~3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미술관장님은 소장작품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하시는 것이네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왜 아까 그것은.....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예술가치라는 것은, 제가 미술관에 와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초대관장으로 와서.

아직 소장작품에 대한, 소장이라는 것은 작품을 그냥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계보라든지 유형이라든가 또는 양식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앞으로 소장을 하려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혹시 지금까지 훼손된 것이 있나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훼손된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거의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도난당한 것은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도난당한 적도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1,000만원이 적정가다 이것이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닙니다. 적정가가 아닙니다. 다르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강제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4,000만원 달라 하는 것도 1,000만원만 받아라, 그런 식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미술관에서 일방적으로 작가들한테.....

저희들은 앞으로 대략 2,000점 이상, 앞으로 목표는 4,000 점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車星煥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권옥연님의 실내정물화가 도난을 당했다, 4,800만원짜리가 도난을 당했다 했을 시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액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험계약을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글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계약을 몽똥그러서 전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단일목록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어서 한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와봤더니 그런 보험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중에 있는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언제 계약하시려고요, 그렇게 산출해서?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곧 되어야 됩니다.

○車星煥 委員; 어디 보험회사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직은 보험회사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 보험회사에 예술품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고 미술은 가능합니다만 현대작품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금 우리 나라 보험회사 체계라는 것이 아직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국외로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협약을 해서 또 협약을.....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일단 1,000만원 정도 한번 확보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0만원이라는 것은 형평을, 물론 고가로 파는 작가도 있고 값이 조금 낮은 작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작가는 비싸게 사고 저희들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사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앞으로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간에 있으니까.....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아닙니다. 지금까지 1,000만원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2,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1,000만원에 양도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원에 도저히 못 팔겠다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없었죠.

○車星煥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잘 선정하셔서,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하시더라도 잘.....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험료는 보험작품당 0.2945%를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 작품에 대해서는 0.2945%니까 2만 9,450원 정도가 보험료로 우리가 지불하고 여기에 대해 이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로마간 관광교역전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로마로 선정한 것이?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들이 로마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되고 로마시가 지금 저희 서울시와 적극적인 교역 또는 도시간의 교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탈리아 로마 쪽의 패션 쪽에는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장님 다녀오시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를 희망해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택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마 패션전이라든가 또는 서울·로마 관광교역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로마와 우리 서울시가, 특히 로마는 잘 아시지만 로마의 문물이 우리 나라에 소개는 많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개된 바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인해서 서양문물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車星煥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로마가 예술성이 뛰어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관광국에서도 문화재도 하나의 국부로 생각하시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로마에 그것을 많이 배워오셔서 우리 관광산업에도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교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물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지금 소장작품이 몇 점이나 되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현재까지 구입이 1,748건이고요, 기증받은 것이 지금 현재 처리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4,523건

해서 6,271건이 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거기에는 보험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저희는 미술관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보험 부담금액이 워낙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로는 보험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은 위험발생이 출발이 되는데 저희는 감시장치카메라, 또 창고의 출입통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까지는 고가고, 또 여러 가지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별 무리가 없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車星煥 委員; 그런데 꼭 그렇게 모든 일이 안전하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사고 안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니까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안전장치를 더 추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험부담금액은 보험평가액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박물관에 지정문화재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1건당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자기라면 10억, 20억 평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실부담금액이 연 관리비로 몇 천만원 이상 나가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현재로는 공사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車星煥 委員; 만약에 관리하는 직원이 다루다가 손상을 입혔을 시에는 어떻게 규정이 있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현재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상을 하도록,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개인 실수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고가액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전반적으로 금액 평가는 아직 안 냈습니다. 금액평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정문화재가 높다고 봅니다.

지정문화재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류인데, 전적류 같으면 사경, 불경류는 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2~3억원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도자기 쪽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이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도자기도 최소 몇 천만원짜리 있을 것 아니에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몇 천만원 이상짜리는 많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 몇 천만원짜리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다루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안전관리를, 바라시는 취지를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유물은 전문 직원들이 다루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원들은 그런 쪽에 훈련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요…….

○車星煥 委員; 실수가 없다 이거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100% 실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사고 나면 1점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도자기의 경우 파손이 되면 수복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명백히 개인의 실수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하고…….

○車星煥 委員; 변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규정이 없는데 누가 변상을 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車委員님, 그것은 변상 같은 개인의 실수가 있을 때에는 公務員法에 의해서 개인변상을 해야 됩니다.

○車星煥 委員; 公務員法에 의해서?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公務員法에 의해서 변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그 위험물 취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점을 관장님께서서는 더 깊이 고려해서 추후로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알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증·개축 공사가 진행중에 있죠? 그래서 예

산이 지금.....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총 예산이 약 250억입니다.

○車星煥 委員; 총 278억원?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네.

○車星煥 委員; 278억이 소요가 되는데, 혹시 증·개축 공사하시면서 설계변경 하신 사례가 있었나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설계변경은 원래 그게 대법원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자리인데, 대법원 건물의 전면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점에서 아주 부분적인 개축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잠깐만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했던 것을 사업을 해 나가면서 변경을 했느냐는 그런 의미의 설계변경이에요.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조금 있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몇 번 있었죠?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그러니까 안전검증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서너 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너 차례라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車委員님 질의하신 그 설계내역은 우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2,890평 정도로 했던 것을 한 4,000

평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물의 전면부, 전면부에 대한 설계변경 그것이 가장 주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4,000평으로 늘릴 때가 언제였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들이 99년으로.....

○車星煥 委員; 그리고 전면부 설계변경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때 같이, 올해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올해 2,000년도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같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없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리고는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전면부 설계변경 할 때 예산 소요가 추가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전면부는 예산에 대한 증액보다는요, 저겁니다. 당초에 있던 대법원 벽체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상태에서 왔다가 그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철거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상당히 했다가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그 형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설계변경은 지금 말씀드린 면적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설계변경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내년 2001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86억원이 소요되었죠?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리고 내년에는 125억이네요.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125억 4,700만원입니다.
- 車星煥 委員; 38억원이 지금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연도별의 투자계획이지, 이번에 2001년 12월에 완료시키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車星煥 委員; 연도별 투자계획인데, 왜 완료시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설계변경 없이 바로 지금대로 확정된다 이거죠?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시기적으로도 지금 또 대규모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개관이 12월에 하는 것입니까?
- 文化觀光局長 崔頌; 한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외관이 다 되더라도 그 안에 전시장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한 3~4개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집기나 비품 구입은 내년에 또 예산에 들어가겠네요?
- 文化觀光局長 崔頌;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에 있는 것을 일부 쓰면서 보완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8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 劉俊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질의하실 위원님, 李聲九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聲九 委員; 李聲九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제는 미디어시티 총감독이 있었는데.....

○文化觀光局長 崔頌;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이 외부 인사와 워크숍을 지금 2시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상임위원회가 끝날 줄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워크숍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여기 담당 실장님 나오셨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3시까지로는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회의장을 마련해 놓고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李聲九 委員; 누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기획실장하고, 기획실장은 회의장만 마련한 뒤에, 회의를 개의한 다음에 바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한 3시쯤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워크숍을 계획했기 때문에.

○李聲九 委員; 그러면 뭐 얘기가 되나?

○文化觀光局長 崔頌;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아직 결산이 안 끝났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아직 완전하게 결산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니다.

○李聲九 委員; 전부 들어간 돈이 75억?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聲九 委員; 지금 중간집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저희들이 72억 7,8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72억 중에 시비가 50억, 72억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72억의 구성은 市 보조금이 50억, 수익사업이 5억 2,400만원, 다음에 협찬액이 17억 5,600만원.

○李聲九 委員; 협찬액은 엔터테인먼트.....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닙니다. 이 협찬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협찬수입은 현금이 14억 5,600만원이고 기타 현물로 출자를 받은 것이 3억입니다.

○李聲九 委員; 주로 어느 사에 대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협찬수입은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협찬을 받은 사항입니다.

○李聲九 委員; 이 코너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의 집행내역은 별도입니다.

○李聲九 委員; 하여튼 앞에도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 동기, 목적, 그 사이에 있었던 저간의 얘

기는 거두절미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새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일에 이렇게 많은 50억 예산이 들어갈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아무래도 본위원회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72억 중에 미디어아트가 21억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한 11억 들어갔는데 이 두 행사를 우선 서울시가 자꾸 집착을 하는데, 서울시를 미디어예술의 어떤 메카로 하자 이런 것은 좀 뭐랄까요, 너무 황당한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창조적인 데가 있어야 예술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지만 이 미디어를 매체로 해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좀 한계성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우선 볼거리도 없고, 또 볼거리 없는 것을 어거지로 예술을 한다고 하니까 난해하기 이를 데 없고.

아무튼 거기에 21억을 넣는다는 것이 뭐랄까, 예산을 막 이렇게 써도 되는가, 우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는 우선 우리 市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예술화해서 서울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욕심이, 별 실체 없는 욕심을 황당하게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미디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예술의 어떤 장이 되겠느냐.....

미디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보면 행위예술에 해당한다 할까, 하나의 전위랄까 이런 장르인데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민의 귀한 세금을 그렇게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예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 본다면 그것은 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마구 큰 잔치를 실체 없는 데 벌려도 되겠나 하는 것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시작해 봤으니까 이것을 끌고 가는 방법이 우리 金星煥委員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디어센터 같은 정도로 만들어서, 국립미술관에 보니까 거기 백남준씨 들어가다가 뭐 탐처럼 해 놓은 것이 있네요.

그런 고정시설, 좀 잘 된 작품을 고정적으로 전시하면서 또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자기들이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전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미디어를 예술화시키는 그런 것도 충족하면서 이런 전시성, 일과성으로 안 가고도 오히려 실속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車星煥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여료는 전체 2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만 45개 작품 중에 외국에서 온 것이 40개인데, 그것을 작품 운송료가 3억, 장비라는 것이, 여기에 장비구입이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대부분 VR로 화면을 통해서 사출되는 영상을 위한 각종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입니다.

○李聲九 委員; 결국은 이것이 돌아가버리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경비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일부는 없어지지만 또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한 6,000만원 장비 처리한다면 6,000만원 정도 나온다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聲九 委員; 그러면 다 없어지는 돈이죠.

그 다음에 전시장 경비, 뭐 사실 황당한 잔치를 해서 거기 이십 몇 억을 넣는다는 것이 하여튼 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속있게, 어떻게 미디어센터 같은 데서 비용 안들고 욕심을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나갈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11억은 본위원회도 한번 둘러봤는데, 그런 대로 이런 미디어 산업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거기도 또 돈을 이렇게 안 넣고 무슨 업체들보고 설치를 유도한다든가 어떤 박람회식으로 끌고 나가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돌면서 하게 됩니다.

단지, 이번 세 코너 중에 엘리스 쪽은 애들한테 둘러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세 코너 중에 아무튼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박람회식으로 하면 큰돈 안 들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미디어아트는 숫제 이것은 어떻게 돈 잔치를, 진짜 영성하게 했다는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가닥을 이렇게 새로 다시 잡아가야 될 텐데 지금 市에서는 또 10억을 덜컥올려 놔는데,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이 좌우간 이 건에 대해서 대단히 市가 환상적인, 어떤 황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때 같이 위원들간에 조율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심정을 위원 입장에서 시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나는 또 서울시의원을 한 9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그리고 또 그렇게 얻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市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벤처, 물론 알 수 없는

수익을 벤처식으로 투자를 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실수 없을 수 있는 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튼 어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황당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내가 한번 죽 훑다가 보였던 것인데 백남준 작품 구입비 2억 얼마인가 나오던데, 그것은 뭘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백남준씨가 옛날에 전시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살아 있다라는 아주 대형작품을 하나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남준씨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작품을 서울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은 그 설치 이전 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李聲九 委員; 얼마 들어 있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체해서 저희들 박물관에 설치하는 이전, 해체, 그 다음에 설치비 그것이 전부 2억 2,000만원입니다.

○李聲九 委員; 아무튼 백남준씨가 미디어아트 쪽에는 개척자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데는 다 기분좋은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트의 원 구상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너무 환상적으로 크다는 얘기를 한번 더 하면서,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그 작품도 기왕이면 국내 작품들로 하면 비용도 덜 나가고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콜라텍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유스텍입니다. 콜라텍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요, 유스텍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얼마씩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이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한 데는 이제 임대료에다 운영비를 월간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들이 유스텍을 하는 것은 월 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월 80만원?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聲九 委員; 할 만하네, 지금 총 거기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으로.

○文化觀光局長 崔頌; 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서바이벌게임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서바이벌게임은 14억 2,100만원입니다.

○李聲九 委員;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운영비만 14억 2,100만원입니다.

○李聲九 委員; 두 곳에서?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두 곳에서 합니다.

○李聲九 委員; 이것은 좀 확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죠? 접수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12월로 다 종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5월인가 개원을 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을. 그렇기 때문에 한 7개월 운영한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숫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울대공원에 청소년수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군데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서울대공원에, 그러면 세 곳이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이것은 뭐.....

○文化觀光局長 崔頌; 거기에는 아직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李聲九 委員; 아무튼 유스텍하고 서바이벌게임은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어떤 공직의 뭐랄까, 정체성을 탈피하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행정을 끌어가고 있다는 기분좋은 느낌을 받는 대목이고, 이런 대목에 돈 좀 큰돈도 아니니까 쓸 수 있는 대로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아무튼 이 미디어아트, 특히 미디어 2002년 건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 얘기를 있겠지만, 근본으로 이 문제를 집행부도 너무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런 서울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 프로젝트가 흘러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감사합니다.

(劉俊相 委員長, 吉基演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李東秦委員님.

○李東秦 委員;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요,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져서 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자치구와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국·시비가 지금 5 대 5로, 투자비가 5 대 5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晚; 금년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3군데 했습니다. 5 대 5로 지원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면 구비 투자는 없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晚; 구에서는 구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경우는 구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요.....

○李東秦 委員; 구비 자체로 문화의 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체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때 그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晚; 금년에 저희들이 3군데 하는 데는 사실 문화의 집이 저희들 시립 수련관 내에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지원했구요.

내년에는 1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서대문구청에서 문화의 집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5억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광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晩; 네,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문광부에서는 물론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까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晩; 네,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수련관 시설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대개 문광부에서 2억에서 한 5억 정도 그 규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의 독립건물에 지을 경우에는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면 우선 말이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든 국비든 투자를 해서 시설이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이 문화의 집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좀 회기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盧秀晩; 네.

○李東秦 委員; 그리고 창동운동장 개발문제, 도봉구 청소년수련관 이 두 가지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도봉 청소년수련관의 부지 자체가 서울시와 의정부의 시계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지 않고, 그런 측면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창동운동장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용역을 주어서 나왔습니다.

○李東秦 委員; 거기에 보면 실내체육시설 계획이 현재 잡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말이죠, 이 창동운동장 개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이것을 복합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장소의 문제나 또는 전체 투

자비용에 있어서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은 비용절감도 되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도봉에는 세 가지 의견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도봉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국한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도봉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부지가격이 상환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거기가 정해졌고요.

즉시 추진이 가능해서 했는데, 지금 시의원님들 지적이나 또는 도봉구의 실무의견을 봤을 때는 비록 아무리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도봉 택지개발이 된 다음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검토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님이 일부 제시한 대로 현재 초안산 주변의 민간시설을 도시계획용도를 바꾸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동운동장에 복합시설로서 설치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봉구와 서울시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확정을 하는데, 다만 창동운동장 기본계획은 12월15일자 정책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 12월 15일까지 이 의견이 완전히 수렴

되면 그때 정책회의 때 이 문제는 거론해서 확정할 예정인데, 이 문제가 아직은 저희들로서는 딱 잘라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 있고 심의대상의 하나로 도봉 청소년수련관의 설계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는 역시 도봉구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서울시 시설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으로 이용되는 수요자는 역시 도봉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물론 이 설계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라든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되,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예산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해서 3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이것은 자치구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약 4개에서 5개 교실로 해서 방학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일반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확인이 안 되었죠? 그냥 내려보내주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작년의 운영실적, 올해가 전체적으로 확인이 다 안 되었겠습니까만, 주로 이것은 방학중에 하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주로 방학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하는 곳이 구별 1개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중에 청소년들이 한문·예절교실을 자치구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李東秦 委員; 물론,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만 자치구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2000년도 11월말 현재로써 보고된 것은 148개소를 운영해서 5,278명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148개면 1개 교실당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 계산하면?

○文化觀光局長 崔頌; 한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것 지금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청소년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예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온 것이니까 자치구에서는 운영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이후로라도 이것 계속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盧永奭委員님.

○盧永奭 委員; 국장님,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강서 청소년수련관에 지난해 1억 6,0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지역은 영세민도 많고 구정이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강서 청소년수련관은 구립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립시설이기는 하나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원래 구립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盧永奭 委員; 그런데 지금 강서구의 특성상 이것은 금년에도 다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저거할 테니까 수용하시고.

방금 李東秦委員이 지적하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이런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산이 거품마냥 그냥 떠도는 그런 실효성이 없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말뿐인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치 않거든요.

그 밑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盧永奭 委員; 이것 또한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고요. 잘 운영하시면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예산은 별로 많지도 않죠? 밑의 것은 1억원인가, 새로 있는 것이 1억이죠?

이런 액수가 제대로 잘 집행되면 다음에도 성과가 있어서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집행을 한 문화국에서 사후에 어떤 결과보고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과 더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프로그램 평가할 때 좀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盧永奭 委員;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聲九委員님.

○李聲九 委員; 미디어시티2000 조직위원회가 정리를 하고 아직 1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저희들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아주 필수요원은 잔존하는 것으로 해서.....

○李聲九 委員; 그것이 몇 명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명백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아주 10명, 20명 이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이 10여 명 남아 있는 사람은 꼭 필수 요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행사나 기타 준비사항에 있어서는.....

○李聲九 委員;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있어야 된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남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요, 청산이 끝나면서 그 정도의 인력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리고 지금 72억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결산을 마저 하면 지금 서울시가 50억 넣고 아까 이리저리 수익사업 하고 찬조받고 해서, 그래도 한 3억이 결손이라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나지 않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남는다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聲九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이 좀.....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직까지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결손부분은 없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시면 그것은 좀 아는 대로, 쉽게 말해서 지금 들어온 돈하고 나갈 돈하고 우선 밸런스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억 육천 얼마인가가 결손이라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여부를 좌우간 알려 주세요.

지금 그대로 수입하고 지출을 그냥 털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가 2억 육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文化觀光局長 崔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부분에서 어느 쪽이 얼마만큼 남고 적고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정산된 결과로는 더이상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李聲九 委員; 추가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50억만 가지고 끝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가동하고, 짓고 있는 것이 전부 몇 개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11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건립중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총 21개가.....

- 李聲九 委員; 21개가 각 구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 李聲九 委員; 그러면 하나씩 없는 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종로, 용산, 마포, 서초, 이렇습니다.
- 李聲九 委員; 이것이 어떤 서울시가 구단위로 돌아가는 행정의 모양상, 또 청소년들의 심리상 하나씩은 우리가 같이 짓자는 것이죠?
-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靑少年基本法에도 그러한 원칙이 천명되어 있고요, 저희들 市의 행정원칙도 1구 1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聲九 委員;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
-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부지문제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용산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서 부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는 현재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초는 지금 부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聲九 委員;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 文化觀光局長 崔頌; 예산의 경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자치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聲九 委員; 부지하고 건물을 다같이 지원을 안 합니까, 어느 한쪽은.....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합니다.
- 李聲九 委員; 둘 다 안 합니까?
-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80% 미만인 자치구는 전액 시비를 지원합니다, 부지든 건물이든.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건립비의 일정 %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80% 넘는 데는 건립비의 얼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80% 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李聲九 委員; 전혀 지원이 없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짓고 하는 것은 해당구의 문제가 되나요, 넘은 경우에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李聲九 委員; 결정할 문제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聲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국장님, 한 가지 할게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창덕궁 돈화문에서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을 공익근무요원에 1억 3,3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현역에 준하는 병무청 소속의 군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식비, 복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돈을 주지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러시고 여기 보면 수문군 수위의식은 뭐고 수문장 교대의식은 뭐예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초를 서는 것과 보초가 교대하는 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보초를 서는 경우는.....

○委員長代理 吉基演; 보초를 교대하는데 이것도 의식이 필요한 것인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의식이 필요합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여기 두 명 교대하는데?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군들이 바꿉니다.

그런데 창덕궁에서는 그 두 사람 보초만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1시간 서 있다가 피곤하니까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덕수궁에서 하는 교대의식은 전체적인 인력이 바뀌는 교대의식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것을 이제 창덕궁에서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거기다 그 의식만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보초는 창덕궁에도 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런데 덕수궁도 이벤트 할 시간 그 시간 외에 보초가 2명 정도 서 있으면 안 돼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11시부터 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왜 11시부터 서 있을 이유가 있나요? 문 열 때부터 서 있으면 되잖아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니까 인력도 더 많이 소요되고요, 또 11시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11시부터 서 있고, 교대의식은 2시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제가 알기로는 이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저의 상식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버킹검 이런 데도 퍼레이드고, 모나코 이런 데도 가 보면 한 4명의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것이고, 어디 가봐도 다 옛날 복식을 하고 하는 데는 없어요, 중국에 가도 없고.

유일한 것인데, 이번에는 창덕궁에서 하실 때는 덕수궁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덕수궁은 고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동작 하나 하나 바뀔 때마다 영어, 일어로 번역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즉 진행이 되어야 보는 사람도 흥미롭고 쇼적인 재미가 있는 것인데, 한 동작하고 영어로 설명, 일어로 설명, 한국어로 설명, 또 한 동작하고 설명하고 하니깐 시간도 길어지고 지루한 그런 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결론은 고증을 한 사람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셨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엄격한 고증에 의해서 그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래서 덕수궁 쪽은 그런데, 창덕궁 쪽도 그렇게 엄격하게 고증에 의해서 하실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바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벤트화 해서 교

대의식화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덕수궁과 비슷한 형태로 고
중에 의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은 이벤트화하는 쪽으로, 창덕궁 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광업계에서 창덕궁 쪽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
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창덕궁은 아시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인
원이 모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웨이팅시간이 보통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인력이 모여야 되니
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지루한 시간에 교대의식
을 넣어주면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한다, 그러니까 창덕궁 부
분에 하는 교대의식만은 고중에 따르더라도 철저하게 따르지
말고 복장도 달리하고 이벤트화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
겠다 하는 것이 관광업계나 관광공사, 또 이 창덕궁에 대해서
는 문화부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도 지금 대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래서 이 덕수궁은 고중대로 하시고
창덕궁, 비원 쪽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나라 관
광 오는 사람 중의 거의 대다수가 거기를 찾거든요. 그것도
벨트가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으로 이어져서 고궁벨트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벤트를 멋있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교
대만 하지 말고 갑자기 교대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수문
장들이 제압을 한다든가, 옛날에 호패검사를 했잖아요? 왕궁
에 올 때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또 서민도

올 것이고 대신도 올 것이고 거지도 올 것이고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들은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기도 해서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런 위트와 해학이 있는 이벤트가 되어야지만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덕수궁이 한 5~6년 되어서 지금에사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1~2년 만에 히트를 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시면 호텔마다 이벤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 해적선 이벤트가 있잖아요?

해적선 이벤트가 보면 해적선하고 영국 군함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해적선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영국군함이 침몰을 하고. 거기 가 보면 뭐 군중들이 수만명이 모여요, 그것 할 때 마다, 한 1시간 텀으로 하는데.

그래서 멋있는 이벤트, 우리가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왕궁수문장 이런 것은 전 세계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 또 고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하시되 뭔가 좀 색다르게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를 섞어서 하시면 아주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덕궁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하신 분은 물론이고, 관광이나 이벤트 전문업체와 한번 자문을 여러 군데 구해서 그쪽으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관중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 예산의 수십배 수백배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조를 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盧永奭委員
님 질의하십시오.

○盧永奭 委員; 국장님, 우리 나라 이조 500년 동안 유교가
국교이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학자 중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동의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제가 책을 읽지 않아서.....

○盧永奭 委員; 그런데 바로 본위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양천
향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향교는 아마 서울시내에서 유일하
게 남아 있는 향교일 것이예요.

그래서 서울시 문화국에서 그 건물에 대한 단청이라든지
기와 다시 입히기라든지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것을 해 냈단
말씀이죠.

해 냈는데 우리 문화국 업무에는 과거시험 재현이라든지
단오 민속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 향교에 봄·가을로
석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석전대제라는.....

○盧永奭 委員; 성균관대학교에도 있고 거기에 있는데.....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가 성균관대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석전대제.

○盧永奭 委員; 그러면 민간시설이죠. 그 지역에 있는 향교를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
에서도 지금 건물은 잘 단청이 되고 기와도 바뀌어졌다고요.

그러면 봄·가을로 행사하는 것도 우리 문화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지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에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원래 저희들이 자치구의 특성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양천향교 석전대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인데, 신청을 한다면.....

○盧永奭 委員;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요, 연날리기라든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양천향교 같은 경우는 이조 500년, 그 동안에 그래도 왕조를 지속하는데 그 유교정신이, 소위 선비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들려오는 속담의 말도 있잖아요.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해엄은 안 친다, 무슨 얼어죽어도 결불은 쪼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이 자존심 강하고 또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들이 필요한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유산이니까 그 유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곁에 모양은 제대로 만들어 놔는데 운영상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頴;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盧永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58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劉俊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 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상세하게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照)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부분

(뒤에 실음)

.....

○委員長 劉俊相;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 제로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崔領 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 시

립대학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3分 散會)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成浩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劉大運 柳辰永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

局長 崔領

體育青少年課長 盧秀晚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市立美術館長 劉俊相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赫模